

중남미 이민과 한국의 재외동포정책

임 수 진 (대구가톨릭대학교)
(sonialim7@cu.ac.kr)



국문요약

이 연구는 중남미 한인 이민을 시기와 지역별로 구분하여 이주와 정착 과정에서 나타나는 함의를 고찰하였다. 1962년 정부가 해외이주법을 제정하고 처음 파견한 이민은 브라질 농업이민이었다. 농업이민은 남미 전역으로 확산되었지만, 중미 지역에서는 농업이민이 없었고, 이민 시기와 목적, 정착 과정에서 다른 양상을 보였다. 현재 중남미 한인 대부분이 의류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한인 1세대의 의류사업을 1.5세대와 2세대들이 가세하면서 질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이들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함으로써 거주국에서 한인들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인적자원을 한국의 소중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남미 한인들은 중남미한인회총연합회, 중남미한인상공인총연합회 등 정부의 네트워크 정책에 참여하여 중남미 국가 간 연대와 모국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중남미 한인 사회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포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이 중남미 지역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하며, 이러한 요구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학계의 중남미 한인연구 확대를 강조하였다.

주제어 : 재외동포, 중남미 한인, 중남미 이민, 재외동포정책, 농업이민

I. 서론

재외동포는 거주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자원이다. 한국은 1962년 해외이주법을 제정하고 이민단을 파견하기 시작하였으나 본격적인 재외동포정책은 한참 후인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집권하면서부터 시행되었다. 뒤늦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최근 10여 년 사이에는 재외동포 네트워크 형성,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 등의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면서 재외동포들의 모국에 대한 영향력도 강화되었다. 2017년 한국의 재외동포 인구는 740만 명이다(외교부 2017). 그 중 중남미 재외동포는 106,794명으로 전체의 1.44%에 불과하다. 그러나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재외동포들은 중남미한인회총연합회, 중남미한상연합회를 구성하여 모국과의 유대관계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중남미 각국 한인회와 한인단체간의 연대를 통해 한국과 중남미 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국의 중남미 이민 역사는 1905년 멕시코 에네켄(Henequen) 농장 계약이민으로 시작하여 1962년 해외이주법이 제정되고 중남미 국가들과 수교를 맺기 시작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멕시코 노동이민 이후의 한인들의 이민으로는 일제강점기에 일본 국적으로 이주한 조선인들, 한국전쟁 이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로 이주한 반공포로, 선교와 유학 목적으로 입국한 한인들의 정착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 시기 중남미 이민은 매우 드물었으며, 한국 국적을 갖고 정주(定住)의 목적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1962년 해외이주법이 제정되면서부터다. 같은 아시아계인 일본과 중국이 1800년대 초반부터 대규모 이민단을 송출한 것에 비하면 한국의 중남미 이민 역사는 길지 않다.¹⁾

중남미 한인 이민은 정부정책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정부의 농업이민정책은 실패했고, 한인들의 정착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은 없었다. 그러나 중남미 동포들은 한국인 특유의 부지런함과 끈기로 이주 초기의 혹독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착하여 현지사회로부터 성공한 이민공동체로 평가받고 있다. 한인들의 대부분은 의류사업에 진출해 있고, 현지 의류시장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차세대 동포들의 경우에는 부모 세대와 다르게 법조인, 방송인, 교수 등 의류사업 이외의 분야로 진출함으로써 거주국은 물론 거주국과 한국을 연계하는 매개체로서 재외동포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남미 이민을 시기별로 나누어 비교분석함으로써 한인들의 중남미

1) 현재 파나마 인구의 5% 정도가 중국계이고, 브라질에만 200만 명에 가까운 일본계가 거주하고 있을 만큼 대규모 이민단을 송출했다. 특히 중국의 이민역사는 청나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1800년대 초반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중남미 국가들은 노예제 폐지로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겪자 쿨리(coolie)라는 노동계약으로 중국인 노동이민을 받아들였다. 19세기 말에는 아랍계와 유대계가 이주하기 시작했고, 이때 유럽인의 이주도 본격화되었다(김기현 2017, 475)

이주와 정착 과정에서 나타나는 함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중남미 이민은 1962년 정부의 해외이주법 제정 이후 시행된 첫 이민으로 중남미 이민 사례를 통해 당시의 해외이주정책을 살펴볼 수 있다. 이어서 정부 주도의 이민단 파견이 중단된 1980년대 이후의 중남미 한인 사회의 변화와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중남미 한인사회의 특징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재외동포 개념

재외동포는 교포, 재외국민, 교민, 재외한인, 해외한민족, 해외동포, 한민족디아스포라 등 다양한 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전 정권과 비교하여 적극적인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해 온 김영삼 정부는 1995년 우리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이주민과 체류민을 '재외국민'으로, 우리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한민족까지 포괄하여 '재외동포'로 공식화하였다(이용재 2015, 8). 대한민국 건국 이전 중국, 연해주, 일본 등으로 이주한 한민족까지 재외동포로 인정한 것이다. 1999년 김대중 정부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여 재외동포를 규정하였고, 몇 번의 법 개정을 통해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시행령 제 2조는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재외국민으로, 제 3조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

2. 선행연구

국내 재외동포 연구는 지역 간, 국가 간 연구 성과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각 지역과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규모와 이주 역사의 성격, 모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영향력, 재외한인 연구자 수와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2010년 이전 발표된 재외한인 관련 학술논문 1,340 편 분석 결과를 보면, 조선족 관련 논문이 59%를 차지했고, 그 다음은 재일한인 13%, 재미한인 6.5%, 고려인은 3%였다(윤인진 2009, 349). 유럽, 중남미, 오세아니아 지역 연구는 드물었고, 그 중 중남미 관련 논문은 일곱 편에 불과했다. 이 논문들은 한인

거주 인구가 많은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를 분석하였고, 모두 이주 역사를 다루고 있다. 양명호(2016)는 2015년까지 발표된 논문으로 시기를 넓혀 재외동포 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했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재외동포연구에 대한 양적·질적 성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재외동포 연구는 양적인 연구 결과가 크지 않아 기타지역으로 분류되어 분석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었다.

국내 중남미 재외동포 관련 연구논문은 1989년 문화인류학자 전경수가 ‘브라질 한국이민의 문화화 과정과 자녀교육’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의 논문들은 초기 한인 이민 과정, 이민사회 형성과 현황에 초점이 맞추어졌는데(서성철 1995; 최금좌 2000), 특이한 것은 재외한인 연구자가 아닌 국내의 중남미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는 점이다. 2000년부터는 중남미 연구자들의 전공이 다양해지면서 연구 주제와 대상 국가가 다소 확대되었다. 노용석(2014)은 과테말라 한인사회의 형성과 현지화 과정을 분석하여 주류사회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극단적인 이윤획득을 추구하는 문화적 독특성을 도출하였다. 구경모(2015)는 파라과이 한인의 정착과정 및 현황 분석을 통해 파라과이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 한인 후속 세대의 고용 갈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칠레 한인 연구는 최진옥(2017)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미국으로 이주를 계획하는 일시적 체류자로서의 칠레 한인의 정체성을 분석하였다.

브라질의 동포연구는 브라질을 연구하는 국내학자들 뿐만 아니라 문학, 문화인류학, 정치외교학, 사회학, 지리학,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까지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의 지평을 확대했다. 초기의 연구가 이민사와 이민사회 형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후속 연구는 브라질의 한류(정길화 2015; 김영철 2016), 한인 후속세대의 정체성 분석(양은미 2012; 김영철 2015), 브라질의 아시아계 이민과 한인 사회 비교(임영언 외 2011; 이채문 2016), 브라질 한인문학의 형성과 정체성(김환기 2011; 김낙현 2015), 브라질의 가톨릭교회(김향섭 2006) 등으로 이어졌다.

멕시코는 중남미 한인 이주 역사가 가장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1905년 에네켄 농장에서 계약노동자로 일하기 위해 멕시코 유카탄 반도로 떠난 초기 이민과 그 후손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이종득 2003; 박영미 2004), 1964년 한·멕시코 수교 이후의 공식이민에 대해서는 이주 시기별 한인사회 형성과 변화를 분석한 염미경(2013)과 한인정체성을 분석한 서성철(2004), 한인들의 음식문화를 연구한 권숙인(2005)의 논문에 불과하다. 쿠바 연구 역시 초기 이민사와 후손 연구에 국한되어 있었으나(서성철 2000; 안금영 2004; 정경원 2004), 최근 쿠바 한인들의 독립운동과 정부 서훈을 다룬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다(김재기 2017).

아르헨티나는 현지 거주하는 한인들과 아르헨티나 학자들이 연구를 주도해왔다. 아르헨티나의 한인연구는 1980년대부터 비아로그르스키(Bialogorski 1989; 1996; 2006; 2009)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아르헨티나의 볼리비아인, 아랍계, 유대계 이민과 한인사회를 비교하였고, 또 재 아르헨티나 조선족을 연구하기도 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학 국제관계연구소는 1997년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한국인 이민이라는 책을 출간하였고, 연구소장인 메라(Mera 2011)는 한인의 정체성, 한인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아르헨티나의 문화 교류를 연구하며 아르헨티나 한국학을 이끌고 있다. 한인들의 연구는 한인 1세대인 이교범(1992)의 아르헨티나 한인 이민 25년사를 발간을 시작으로 손정수(2005)가 40년사를, 장영철(2017)이 50년사를 출판하였다. 서성철(2005)은 한인 이민사와 한인사회를 연구하였고, 아르헨티나에서 한국인 최초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박채순(2009)은 한인 정체성과 다문화, 한인 재이주를 연구했다. 또 다른 특징은 아르헨티나 한인문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인 정체성을 분석했다는 것인데, 연구자들은 한인들이 현지화를 거부하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간직한 채 현재의 아르헨티나를 일시적 체류지로만 인식하고 언제든지 역이민 혹은 재이민을 염두한다는 특징을 도출하였다(베로니카 김 2010; 김정훈 2005).

이처럼 중남미 동포연구의 대상 지역과 주제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연구 성과들을 보면 브라질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이민사와 정체성 연구와 같은 기초연구에 머무르고 있다. 아르헨티나, 멕시코, 과테말라는 후속 연구가 이어지지 않고 있고, 파라과이와 칠레는 거주하는 동포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서야 한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는 중남미에서 언어적 접근성이 수월한 중남미 전문가들이 주로 연구를 진행해온 결과이다. 둘째, 국내 재외동포연구 분야를 보면 정치가 가장 많고, 이어 사회, 문화 순이었다(양명호 2016). 그러나 중남미 재외동포연구는 사회와 문화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치와 경제 분야의 연구는 없다. 또한 재외동포재단의 지원이 있던 2000년대 초중반 시기에 다수의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남미 이민 연구가 학문적 관심에서 벗어나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중남미 동포 연구의 확대를 위해서는 중남미 연구자 외의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 대상 국가, 연구 분야, 연구 방법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Ⅲ. 중남미의 재외동포

1. 중남미 재외동포 현황

외교부 2017년 재외동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재외동포 수는 7,430,659명이다. 이 중 중남미에 거주하는 한인 재외동포는 106,784명으로 전체의 1.44%에 불과하다.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일반체류자와 유학생 수가 적고, 영주권자와 거주국 국적을 취득한 동포의 수가 많다. 일반체류자는 전체의 절반 정도가 멕시코에 거주하고 있으며, 외국국적 취득자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주로 거주하는데, 브라질 동포가 29,231명, 아르헨티나가 7,913명이다.

〈표 1〉 2017년 재외동포 현황

| 거주자격별 지역별 | 재외국민 | | | | 외국국적 (시민권자) | 총계 |
|--------------|-----------|-----------|---------|-----------|----------------|-----------|
| | 영주권자 | 일반체류자 | 유학생 | 계 | | |
| 총계 | 1,049,210 | 1,354,220 | 260,284 | 2,672,052 | 4,758,528 | 7,430,659 |
| 중남미 | 52,412 | 15,234 | 563 | 68,209 | 38,385 | 106,784 |

출처: 외교부(2017)

국가별로 보면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과테말라, 파라과이 순으로 한인 동포 수가 많다. 이들 국가는 재외동포 다수거주 국가 30위 안에도 들어있는데, 11위에 브라질, 16위에 아르헨티나, 23위 멕시코, 28위 과테말라, 29위 파라과이다. 브라질에만 중남미 전체의 48.25%에 해당하는 51,531명이 거주하고 있고, 아르헨티나에 거주하는 동포는 23,194명, 멕시코 11,783명, 과테말라 5,312명, 파라과이에 5,090명의 한인이 살고 있다. 이 다섯 국가에 거주하는 한인은 중남미 한인 동포의 90.64%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남미 이민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브라질은 조사가 시작된 1993년부터 한인들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파라과이는 감소했다. 특히 과테말라는 1993년 1,150명이었던 것에서 2011년에는 12,918명까지 증가하였으나, 2015년 들어서는 5,162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하였다. 멕시코의 경우 1993년 792명에서 1999년 2,379명으로 늘었고, 2001년에는 19,500명까지 증가하였다. 2년 사이에 급격한 인구 유입이 있었으나 다시 감소하여 2011년 11,800명으로 줄었고, 현재까지 큰 변화가 없다. 2001년의 급격한 인구 증가는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한인의 유입에 따른 것이며, 다시 인구가 감소한 것은 아르헨티나 출신 한인들이 아르헨티나로 재이주하여 정착했기 때문이다(김기현 2017, 444). 한인 사회의 규모가 작긴 하지만, 칠레, 콜롬비아, 우루과이, 니카라과, 아이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페루와 볼리비아, 수리남은 감소하고 있다.

〈표 2〉 중남미 국가별 재외동포 현황

(단위: 명)

| 연도별 지역별 | 1993 | 1999 | 2001 | 2011 | 2017 | 백분율(%) |
|------------|---------------|----------------|----------------|----------------|----------------|------------|
| 총계 | 92,864 | 102,789 | 111,462 | 112,980 | 106,794 | 100 |
| 브라질 | 43,769 | 46,916 | 48,097 | 50,773 | 51,531 | 48.25 |
| 아르헨티나 | 30,475 | 30,979 | 25,070 | 22,354 | 23,194 | 21.72 |
| 멕시코 | 792 | 2,379 | 19,500 | 11,800 | 11,783 | 10.93 |
| 과테말라 | 1,150 | 4,128 | 5,456 | 12,918 | 5,312 | 4.97 |
| 파라과이 | 9,699 | 10,412 | 6,190 | 5,205 | 5,090 | 4.77 |
| 칠레 | 1,292 | 1,487 | 1,509 | 2,510 | 2,635 | 2.47 |
| 페루 | 329 | 677 | 919 | 1,305 | 894 | 0.84 |
| 에콰도르 | 981 | 762 | 720 | 1,300 | 733 | 0.69 |
| 콜롬비아 | 421 | 646 | 428 | 885 | 941 | 0.88 |
| 볼리비아 | 1,204 | 977 | 709 | 671 | 648 | 0.61 |
| 니카라과 | N/A | 68 | 157 | 550 | 774 | 0.72 |
| 도미니카공화국 | 703 | 584 | 588 | 454 | 667 | 0.62 |
| 코스타리카 | 351 | 360 | 385 | 520 | 461 | 0.43 |
| 파나마 | 377 | 308 | 315 | 310 | 465 | 0.44 |
| 베네수엘라 | 323 | 277 | 278 | 293 | 516 | 0.48 |
| 우루과이 | 66 | 94 | 106 | 169 | 301 | 0.28 |
| 엘살바도르 | 70 | 295 | 307 | 249 | 247 | 0.23 |
| 온두라스 | 285 | 759 | 461 | 284 | 286 | 0.27 |
| 아이티 | 3 | 6 | 7 | 125 | 165 | 0.15 |
| 자메이카 | 160 | 31 | 60 | 124 | 94 | 0.09 |
| 수리남 | 344 | 201 | 189 | 63 | 54 | 0.05 |
| 트리니다드토바고 | 15 | 17 | 2 | 72 | 37 | 0.03 |
| 벨리즈 | N/A | N/A | N/A | 37 | 24 | 0.02 |
| 쿠바 | N/A | N/A | N/A | N/A | 33 | 0.03 |
| 그레나다 | N/A | N/A | N/A | N/A | 13 | 0.01 |

출처: 외교부(2017)와 통계청 자료²⁾를 토대로 재구성

* 2017년 기준 10명 미만 거주 지역인 세인트루시아, 바베이도스, 가이아나, 도미니카연방, 바하마, 세인트 키트네비스, 엔티가바부다 제외

2) 출처: <http://bit.ly/2PufnQn> (검색일: 2018. 06. 05.).

2. 중남미 이민 역사

1) 중남미 비공식 이민

중남미 한인 이주 역사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1905년 조선인들이 멕시코 에네켄(Henequen) 농장 계약노동자로 이주한 때부터이다. 멕시코로 이주한 한인들의 일부는 생계를 위해 쿠바로 재이주했고, 멕시코 각지와 중남미 다른 국가로 흩어졌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국적의 한인들이 일본인 이민단으로 이주하기도 했고,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는 분단된 조국을 떠나 제 3국행을 택한 반공포로의 이주도 있었다. 두 번째 시기는 1962년 3월 해외이주법이 제정되고 중남미 국가들과 국교수립이 시작되면서 국가 주도의 이민단을 파견한 공식 이민의 시기를 말한다. 세 번째 시기는 국가 주도의 이민단 파견이 중단되고 점차 개인 동기에 의한 상업적 이민이 늘어난 1980년대 이후를 말한다.

한국의 재외동포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와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 따라서 1962년 해외이주법 제정 이전에 이주한 한인에 대해서도 재외동포로 인정하므로 최초의 중남미 한인 이민은 1905년 멕시코 에네켄 농장 이주로 봐야한다. 당시 조선에는 1902년 하와이 한인계약이민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 이민을 희망하는 조선인들이 있었고, 멕시코는 유카탄(Yucatán) 반도의 에네켄 농장에서 일할 노동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 받아들여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려고 했다. 일본 이민회사는 4년 계약 조건으로 조선인 이민을 모집했고, 하와이 이민처럼 풍족하게 살 수 있다는 기대감에 1,033명의 조선인들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 멕시코 농장에서의 생활은 노예와 다름없었고, 4년 노동계약이 종료되었을 때는 귀국 비용도 마련하지 못할 만큼 빈곤하였다. 뿐만 아니라 1910년 멕시코 혁명세력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형성되면서 농장주들이 한인 고용연장을 꺼렸고, 일자리를 잃은 한인들은 생존을 위해 멕시코와 다른 국가로 이주하였다(안금영 2002, 56).

1921년 유카탄 반도의 한인 288명이 일자리를 찾아 쿠바로 이주했으나 사탕수수 산업이 불황을 맞으면서 쿠바에서의 생활도 멕시코와 다르지 않았다. 조선을 떠나온 멕시코와 쿠바 거주 한인들은 그사이 나라를 잃었지만 일본 재외국민 등록을 거부하였다. 또한 경제적으로 곤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자금을 모금해 임시정부와 북미국민회에 송금하였고, 한글학교를 설립하여 2세들을 교육하는 등 조국을 잊지 않았다(안금영 2002, 58-63). 그러다 1946년 쿠바 국적 취득이 가능해지고, 1959년 쿠바혁명으로 조국과의 교류가 단절되자 쿠바 사회에 동화되어갔다. 이후 한인 이민이 오랜 기간 없던 상황에서 2007년 쿠바인과 결혼한 한인 여성이 2014년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현재 쿠바에 거주하는 유일한

한국 국적의 동포이다.³⁾

일제강점기에 일본 국적의 조선인이 일본인 이민단으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이주하기도 했는데, 브라질 한인 이민 50년사 자료에 의하면 브라질 최초의 한인은 1917년에 일본어선을 타고 입국한 박학기이며, 이후 입국한 한인들도 일본 이름으로 입국한 일본국 조선인이었다는 기록이 있다.⁴⁾ 1956년에는 55명의 반공포로들이 브라질에 도착했고, 1957년 5월에는 12명이 아르헨티나에 입국하여 정착했다. 이념 대립과 전쟁의 공포가 없는 중립국을 희망한 반공포로들을 받아주는 국가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뿐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 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오끼로 불리던 김수조와 장승호, 이준창이 나와 있었는데, 이들은 일본 국적의 이민자들이었고, 한국어를 잊어서 일본어로 대화했다고 한다.⁵⁾ 후에 브라질에 첫 공식이민단이 도착했을 때는 반공포로들이 이민단을 맞으러 직접 항구로 나갔다.

이처럼 중남미의 한인 이민은 멕시코 유카탄 반도 에네켄 농장 이민에서 시작하여 쿠바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로의 재이주, 일본 국적의 한인 이민, 반공청년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이주를 통해 중남미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2) 중남미 공식 이민

1962년 제정된 해외이주법에 의한 최초의 이주는 1963년의 브라질 이민이다. 이 시기 중남미 이민은 국가 주도의 대규모 농업이민이었다. 정부가 직접 이민단을 모집하고, 경작할 토지를 매입하여 농업이민단을 파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에 대규모로 송출된 이민자들은 대부분 농업이민에 실패하였고, 정착하려던 농장을 떠나 도시로 이주거하거나 다른 국가로 재이주하여 한인사회를 형성하였다. 빈곤했던 한인들은 가내수공업 형태로 봉제 일을 시작하였고, 1970-80년대 기술이민자들의 유입과 투자 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의류업은 크게 성장하였다. 현재는 중남미 거주 한인 대부분이 원단 및 의류 제조, 의류 도소매 등의 의류업에 종사하고 있고, 의류시장 점유율도 상당하다. 이민 동기를 보면, 1960년대에는 농업이민으로 간 사람들은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보다 나은 삶을 찾는 희망을 갖고 있었고, 1970년대에는 남북 대치의 전쟁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사람들로서 주로 한국에서는 중산층이나 자영업자, 그리고 고등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다. 그들 중에 목사나 독실한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도 특이하다(서성철 2005, 160).

3) 출처: <http://bit.ly/2PuLXBp> (검색일: 2018. 06. 24.).

4) 출처: <http://bit.ly/2Pujz2h> (검색일: 2018. 06. 24.).

5) 출처: <http://bit.ly/2PuMVh1> (검색일: 2018. 06. 24.).

1960년대 민간차원의 소규모 이민단체를 벗어나 정부가 해외이주정책을 적극적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는 당시 군사정권이 인구 과밀을 해소하고 군 내부의 소외세력을 정리하는 차원에서였다(손정수 2007, 143). 정부가 해외이주법 제정 후 첫 공식이민으로 브라질을 선택한 이유는 당시 미국이 이민자 수를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농토를 개간하여 경제발전을 이루려고 했으나 농업 인구가 부족했던 브라질은 외국인들의 농업이민으로 노동력을 확보하려고 했다(이채문 2016, 54). 양국의 이민정책이 합의에 이르자 한국정부는 정부 최초의 농업이민단을 송출하게 되었고, 1963년 2월 12일, 제 1차 한인 영농이민단 103명을 태운 배 한 척이 상파울루 인근 산토스 항에 도착하였다.

1차 영농이민단은 정착 과정에서 큰 어려움에 부딪혔는데, 그들이 도착했을 때 브라질 현지 브로커 김수조는 정착지를 매입하지 않은 채 이민단을 받았고, 살 곳이 없던 1차 이민단은 흩어졌다. 2-4차 이민단도 농업에 실패하여 상파울루로 옮겨 정착했는데, 농업 개척이 이민의 목적이 아니라 한국 출국 자체가 목적이었고, 농사 경험이 없는 고졸 이상의 중산층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김기현 2017, 447). 5차 이민단은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1964년에 한국가톨릭이민회를 조직하여 이민단을 모집했고, 1966년 1월 파견되었다. 가톨릭 이민은 이전 이민단의 농업이민 실패를 거울삼아 브라질 폰타그로사(Fontagrosa) 교구장과의 사전 협력, 이민단 사전 교육, 한인 사제 파견을 통한 정착지 사전 매입 등 2년 동안의 준비를 하고 떠났다. 그 결과 농업에는 성공하였지만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자녀교육과 거주여건이 좋은 곳으로 옮겨 정착하였다. 도시로 이주한 한인들 중에는 일본어를 할 줄 아는 한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선은 한국에서 가져온 물건을 일본 이민자들에게 판매하며 생계를 유지했고⁶⁾, 적은 자본으로도 가능했던 의류봉제업을 가내수공업 형태로 시작했다. 또한 볼리비아에서 의류사업을 하다 브라질로 이주한 한인들이 상파울루 봉혜찌로에⁷⁾ 정착하면서 한인들의 의류사업 종사가 급격히 늘었다. 볼리비아 한인은 의류사업 경험이 있었고, 제 3국을 통한 밀입국 한인들과 농촌정착에 실패한 브라질 이주 한인들이 한인의류업체의 값싼 노동력 역할을 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렇게 농업이민단이 브라질 정부와 체결한 농업이민 3년 계약을 채우지 못하고 도시로 이주하자 1969년 브라질 정부는 한인 농업이민을 금지하기에 이른다. 이에 한국 정부는 1971년 외무부 산하 한국해외개발공사를 통해 1,400명의 기술이민자들을 파견하였고, 이들의 입국으로 한인들의 제품은 체계화되기 시작했다(이채문 2016, 62).⁸⁾ 그들은 서류상으로는 기술이민자들이었을 뿐, 실제로는 대학 졸업장을 갖춘 고학력의 중산층이거나

6) 당시 한국정부가 제 1차 이민자들에게 허용된 외화보유는 1인당 200달러였다. 따라서 이민자들은 외화 대신 브라질에 도착해서 팔 수 있는 물건을 준비했다(최금좌 2014, 77).

7) 2010년 상파울루 시는 봉혜찌로를 한인타운으로 공식 지정했다.

8) 이들이 입국할 때는 선박이 아닌 비행기를 타고 입국하였다.

혹은 남대문이나 동대문에서 의류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던 상인들이었기 때문에 질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최금좌 2014, 78). 1990년대에는 한인의 90%가 의류 제조나 판매업에 종사하였고, 2000년대 들어서도 약 70%가 의류 관련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다(김기현 2017, 452).

브라질 농업이민 실패는 같은 시기 농업이민을 떠난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 볼리비아 이주 과정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었다.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는 1965년에 첫 농업이민단이 발을 딛었고, 볼리비아는 그보다 앞선 1964년에 시작되었다. 볼리비아 농업이민단은 고원지대에 적합한 농업기술을 몰랐고, 자본도 없었기 때문에 농업에 실패하였다. 이주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이민단은 볼리비아보다 경제 상황이 좋고,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로 이주하였다. 당시 볼리비아와 파라과이는 이민심사가 까다롭지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기술이나 자본 없이도 이민이 가능했다(국사편찬위원회 2007). 때문에 일단 볼리비아와 파라과이로 입국하여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로 불법 월경하는 일이 많았다.

파라과이는 농업 이민 첫 해인 1965년에만 천 명이 넘는 한인들이 이주하였다. 1965년 2월 17일 부산항을 출발한 네덜란드 국적의 보이스벤(Boissevain)호가 약 두 달간의 항해 끝에 같은 해 4월 23일 30세대 95명의 한국인을 싣고 아레구아(Aregua)에 도착하였다.⁹⁾ 그러나 아레구아는 독충이 우글거리는 황무지였고, 포로수용소를 방불케하는 합숙소에서 생활하던 한인들은 농사를 포기하고 수도 아순시온(Asunción)으로 옮겨갔다(파라과이 이민 50년사, 47). 1차 이민단에 이어 농업이민으로 입국한 한인들마저 농사에 실패하고 아순시온으로 옮겨가 벤데(vende)¹⁰⁾라고 하는 행상을 했는데, 아순시온 이주 초기에 당장의 생계를 위해 한국에서 가져온 물건을 집집마다 방문하여 판매하던 것을 말한다. 이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초기 이민에서도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방식이었다. 또 카시아(Casilla)라고 하는 좌판을 벌인 한인들도 있었는데, 장사가 잘되자 봉제업을 하거나 의류 도소매점을 열어 보난사(Bonanza) 지역 상권을 장악해나갔고, 이 지역에 한인 타운을 형성하였다.¹¹⁾ 이와 같은 정주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한인들은 경제 상황이 더 나은

9) 1965년 8월 17일에는 부산항을 출발해 일본 오키나와를 거쳐 홍콩과 싱가포르, 폐낭, 모리셔스, 더반, 케이프타운, 리우 데 자네이루, 산토스를 거쳐 같은 해 10월 14일 오전 9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하였다. 이 배를 타고 아르헨티나 1차 이민자 13세대와 파라과이 5차 이민자들이 이주해왔다(구경모 2015, 58).

10) 벤데는 집집마다 방문을 하여 물건을 팔고 주 단위로 수금을 하는 할부판매방식이다. 처음에는 이민생활에 쓰려고 한국에서 가져온 물건을 이웃 현지인들에게 내다 팔았는데, 반응이 좋자 현지에 정착하는 한인들의 대부분이 벤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칠레로 재이주한 60대 남성과의 인터뷰).

11) 파라과이의 경우도 90년대까지만 해도 교민 수가 만 명이 넘었지만, 2000년 들어 급격히 줄어 2001년에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로 떠났다. 이처럼 당시 볼리비아와 파라과이를 두고 처음부터 거주지 뜻이 없이 주변국으로 넘어가기 위해 잠시 정착한다는 뜻으로 '대전정거장'이라고도 불렀다(국사편찬위원회 2007).

〈표 3〉 남미의 국가별 연도별 이민 송출현황(1962~1985)

| 년도 | 브라질 | 아르헨티나 | 파라과이 | 볼리비아 | 우루과이 | 콜롬비아 | 에콰도르 | 페루 | 칠레 |
|----|--------|-------|--------|-------|------|------|-------|----|-----|
| 62 | 170 | - | - | - | - | - | - | - | - |
| 63 | 462 | 1 | - | 13 | - | - | - | - | - |
| 64 | 604 | 2 | - | 302 | - | - | - | - | - |
| 65 | 722 | 169 | 1,223 | 282 | - | - | - | - | - |
| 66 | 340 | 6 | 273 | 104 | 7 | 1 | - | - | - |
| 67 | 68 | 2 | 121 | 1 | - | - | - | 1 | - |
| 68 | 306 | 42 | 47 | 8 | - | - | - | - | - |
| 69 | 883 | 142 | 72 | 2 | - | 1 | - | - | - |
| 70 | 1,775 | 797 | 52 | 8 | - | 10 | - | - | 36 |
| 71 | 1,393 | 616 | 11 | 4 | - | 14 | - | - | - |
| 72 | 2,635 | 153 | 94 | 77 | 5 | - | 8 | - | - |
| 73 | 194 | 200 | 192 | 34 | - | 2 | - | - | - |
| 74 | 186 | 124 | 714 | 73 | 48 | 8 | 6 | - | - |
| 75 | 136 | 305 | 2,391 | 221 | - | 7 | 120 | - | 4 |
| 76 | 107 | 1,214 | 6,727 | 276 | 5 | 14 | 18 | - | - |
| 77 | 71 | 351 | 1,211 | 197 | 12 | 5 | 59 | 1 | 1 |
| 78 | 41 | 105 | 15 | 38 | 1 | 3 | 28 | - | 2 |
| 79 | 19 | 26 | 10 | 43 | - | 3 | 6 | 1 | 25 |
| 80 | 18 | 32 | 20 | 94 | - | 3 | 52 | - | 6 |
| 81 | 114 | 107 | 31 | 125 | - | - | 104 | 4 | 13 |
| 82 | 226 | 124 | 278 | 162 | - | - | 36 | - | 22 |
| 83 | 166 | 70 | 694 | 761 | - | 17 | - | - | 40 |
| 84 | 121 | 754 | 1,290 | 1,384 | - | 16 | 284 | 1 | 80 |
| 85 | 203 | 1,953 | 2,100 | 46 | - | 2 | 172 | - | 130 |
| 계 | 10,959 | 7,295 | 17,566 | 4,255 | 78 | 106 | 1,063 | 8 | 359 |

6,190명으로 줄었고, 현재는 5천 명이 조금 넘는다. 현재 한인들은 수도 이순시온에 4천 3백 명, 남미 최대 시장인 시우달 델 에스테(Ciudad del Este)에 7백 명 정도 거주하고 있다.

출처: 전경수(1990, 185)

〈표 3〉은 정부가 공식이민을 시작한 1962년부터 1985년까지 주요 국가 별, 연도 별 누적 한인 수를 보여준다. 브라질에 10,959명이 입국했고, 아르헨티나 7,295명, 파라과이 17,566명, 볼리비아에 4,255명이 입국했다. 그러나 아래 〈표 4〉의 1985년 당시 국가 별 거주 한인의 수와 〈표 3〉의 누적 한인 수에는 큰 차이를 보인다. 브라질은 입국자보다 거주자가 만 명 이상 많고, 아르헨티나도 입국자 7,295명의 두 배가 넘는 15,749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파라과이와 볼리비아의 경우 실제 입국자와 1985년 당시 거주자의 수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파라과이는 17,566명이 입국해 만 명 가까이 떠났고, 볼리비아는 4,255명이 입국하여 582명만이 남았다. 입국자 통계에 드러나지 않으면서 거주자 변동이 크게 나타난 것은 인접국 간의 불법이민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4〉 1985년 남미의 국가별 거주교민 수

| 이민국 | 브라질 | 아르헨티나 | 파라과이 | 볼리비아 | 우루과이 | 콜롬비아 | 에콰도르 | 페루 | 칠레 |
|----------|--------|--------|-------|------|------|------|-------|----|-----|
| 총교민수(명) | 21,948 | 15,749 | 8,336 | 582 | 16 | 142 | 1,083 | 27 | 611 |
| 총세대수(세대) | 4,984 | 3,147 | 2,412 | 159 | 6 | 44 | 290 | 9 | 168 |

출처: 전경수(1990, 185)

브라질 정부가 1969년 한국농업이민단 유입을 금지하면서 한인들의 브라질 입국이 어려워졌지만 1970년대 들어서도 볼리비아와 파라과이 한인들은 불법일경을 계속하였고, 입국 후에는 브라질 의류산업 발전의 값싼 노동력 역할을 하였다. 이 시기 아르헨티나에는 칠레로 가려던 농업이민단이 급하게 이주하기도 했다.¹²⁾ 칠레는 화훼재배이민이었는데, 출발 직전 아옌데 (Allende) 사회주의 정권 수립으로 이민 계획이 무산되었던 것이다. 또한 1965년 이전 볼리비아와 파라과이에 입국한 한인들이 각각 597명, 1,223명이었고, 아르헨티나에 1차 농업이민단이 도착했을 때 이미 982명의 한인이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은 아르헨티나 이민보다 시기적으로 빠른 파라과이와 볼리비아 이민단의 재이주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불법이민의 시기는 1985년 4월 한국과 아르헨티나 간의 자영업 가능한 투자이민협정이 체결되고, 8월 8일 이전 발생한 불법입국자

12) 주 칠레 윤주영 대사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해외개발공사는 칠레의 산티아고 근교에 화훼단지 조성하여 농업이민을 이주시킬 계획이었으나, 칠레에 좌익정부인 아옌데 정권이 수립되자 정부는 칠레에 구입계약을 해 두었던 토지를 포기하고 부에노스아이레스 근교 74km 지점에 있는 루한(Lujan)으로 목적지 변경하여 이주시켰다(전경수 1996, 174).

에 대한 사면령이 발표되면서 끝이 난다. 이로써 투자이민이 급증했고, 파라과이와 볼리비아 체류 한인들이 아르헨티나로 대거 이주하는 계기가 되었다(전경수 1990, 180-188).

볼리비아와 파라과이 이민단들이 최종 목적지로 삼았던 아르헨티나에서 한인 공식 이민이 시작된 것은 1965년 10월 14일 한국인 열 세 가구가 정부 간 협약에 따라 농업 이민 형태로 입국한 것이 최초이다(전경수 1990, 169-170). 아르헨티나 정부가 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개척지를 제공하였고, 이민자들에게 출국 전 농업 교육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에 실패하였다. 아르헨티나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개척지는 불모지였고, 우물을 직접 파서 식수를 해결해야했으며, 마땅히 기거할 거처도 없었다. 한국에서 받은 농업교육은 한국 기후에 맞는 농업이었고, 그들이 들고 온 호미와 삽으로는 드넓고 거친 황무지를 개간하는 것도 어려웠다. 정부기관인 해외개발공사조차도 이민에 대해 무지했던 것이다. 계속되는 농업이민 실패에도 불구하고, 농업이민은 1983년까지 계속되었으며, 이민자 대부분은 농업에 실패해서, 또 개척에 성공하였더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정주하기 위해 도시로 이주하였다. 그렇게 재이주한 한인들은 1966년 경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빈민촌 레티로(Retiro)와 한인들 사이에서 109촌이라고 불리는 109번 버스 종점에 한인 거주지를 형성하고 삶의 터전을 잡았다. 이들은 절박한 경제사정 때문에 돈벌이가 되는 일은 무슨 일이든지 마다하지 않았는데, 주로 이민 보따리에 가지고 온 생활필수품을 거리에서 팔았다. 이런 실습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최소의 자본을 모아 채소상이나 구둣방을 시작했다(서성철 2005, 166). 1967년부터는 가내 수공업 수준의 봉제¹³⁾와 편물을 시작하였고, 새로운 이민자들이 가세해 한국인 특유의 근성과 부지런함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냈다.¹⁴⁾ 현재는 109촌을 벗어나 아벨라네다(Avellaneda)로 한인상권을 크게 확대하였으며, 전체 한인의 90% 이상이 원단, 의류 제조 및 도소매 등의 의류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1983년 심각한 경제위기에 봉착한 아르헨티나 정부는 경제위기를 타계할 목적으로 농업이민을 금지하고 투자 이민을 허용했는데, 아르헨티나 정부가 내세운 유일한 이민 조건은 아르헨티나 은행에 3만 달러를 예치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이민법은 과거 농업이민처럼 정부가 농업용지를 구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개인 차원의 이민이 급격히 늘었다. 1980년에서 1988년 사이에만 한국인 1만 1336명이 아르헨티나로 이주하였고, 1990년대에는 4만 명에 이르기도 했다. 이 시기 입국한 이민자들은 의류 도소매업에 뛰어들어 의류상권 점유를 넓혀갔고, 아르헨티나 패션산업 성장에도 큰 기여를 했다. 그러나 1989년 아우스트랄 플랜(Austral Plan)¹⁵⁾ 실패 이후 심각해진 인플레이션과 2001년 아르헨티나

13) 의류업은 본질적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자금력을 갖지 못한 한인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었다(전경수 1996, 112-113; 서성철 2005, 166 재인용)

14) 출처: <http://bit.ly/2PnoQJb> (검색일: 2018. 06. 15.).

15) 당시의 천문학적인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화폐개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개혁 프로그램.

경제위기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한국으로 재이주하게 만들었다.

실제로 이 시기 멕시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1990년대 들어서는 경제위기가 일어나지 않는데다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발효의 혜택 등 사업여건이 좋았기 때문이다. 한인들의 이주는 거주 국가의 경제 상황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남미 이민을 떠난 한인들은 중남미 정주보다는 최종적으로 미국 정착을 꿈꾸기 때문에 미국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멕시코는 한국에서 중남미로 이민을 희망하거나 혹은 이미 중남미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에게 경유지로 또는 재이주지로도 적합했던 것이다.

3) 개인적 동기에 의한 중남미 이민

1980년대 들어 국가 주도의 이민단 파견이 중단되면서 남미로 향하는 이민은 개인적으로 도착하는 이민의 형태로 변화하였다. 반면 중미 지역의 한인 이민은 1960-70년대 공식적인 이민단 파견이 없었으며, 개인적인 이민도 드물었다. 1980년대 중반 스페인어 연수와 대학원 진학을 목적으로 한국의 대학생들이 입국하기 시작하였고, 1986년 멕시코가 무역을 개방하면서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 구축되자 대기업 주재원들과 에콰도르 한인들이 들어와 정착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 2007). 먼저 정착한 한인들도 에콰도르 이주 한인들처럼 한국의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들여와 판매하는 의류업에 뛰어들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발효되어 투자환경이 개선되자 한국기업의 투자진출이 늘어났고, 1997년 한국에 IMF 경제위기가 닥치자 한국에서 오는 개인 이민도 증가했다. 1998년 후반부터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한인들이 유입되기 시작했는데, 2000년대 들어 경제위기가 가속화되자 그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아르헨티나 한인들의 이주가 많았는데, 멕시코 경제도 침체가 지속되면서 다시 남미로 돌아가자 멕시코 인구는 다시 감소하였다(서성철 2005, 163). 2016년 기아자동차가 멕시코 생산공장을 가동하면서 한인기업의 진출이 늘어났고, 한인들의 유입이 늘어나자 멕시코 국적기 아에로멕시코(Aeroméxico)가 기아자동차 공장이 있는 몬테레이(Monterrey)를 경유하는 한국 멕시코 간 직항 비행을 취항하였다. 이는 멕시코에 정주하기 보다는 양 국가 간 이동이 잦은 일시적 체류자가 많다는 뜻이기도 한데, 실제로 2017년에 멕시코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 11,673명 중 영주권자는 1,757명에 불과하고 일반체류자 및 유학생은 8,939명에 달했다.

과테말라의 한인 사회도 멕시코처럼 일반체류자가 많고, 개별적인 정착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봉제산업을 중심으로 한다. 노용석(2014)에 따르면 1960년대에도 거주하던 한인이 있었으나, 1984년까지 과테말라 거주 한국인은 총 5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후 한인들의 유입은 소수에 그쳤으나, 1989년 과테말라 정부가 제정한 수출진흥법에 따라 외국기업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면서 마킬라도라(Maquiladora)라고 하는 보세가공업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이 진출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중후반부터는 급격히 증가했다(노용석 2014, 137-140). 2011년 과테말라 한인 인구는 12,918명으로 영주권자가 3,101명, 일반체류자가 9,817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전체 한인 동포 수가 5,312명으로 크게 줄었다. 불과 6년 사이 영주권자는 늘었으나 일반체류자의 대부분이 떠난 것이다. 이는 1990년대 한국의 노동환경이 악화되자 투자 인센티브가 많은 과테말라로 사업 목적의 이주를 했었으나 인센티브가 축소되고 경제와 치안이 불안해지면서 기업 철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멕시코와 과테말라 한인사회는 1980년대 중후반에 한인들이 개별적으로 입국하면서 형성되었다. 현재 과테말라에 거주하는 한인의 대부분이 영주권자인데 하지만, 2011년만 해도 상당수가 일반체류자였고, 멕시코 거주 한인들도 대부분이 일반체류자이다. 1960년대 초중반 시작된 남미 이민과 비교하면 20여 년 늦고, 정주의 목적보다는 사업 목적으로 이주했다는 점에서 남미 이민과 중미 이민은 차이를 보이지만, 중남미 동포들의 대부분은 의류산업 혹은 의류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3. 중남미 이민사회의 위상

중남미 사회에서 아랍계와 유대계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은 상당하다. 세계 최고 부자이자 통신재벌인 레바논계 멕시코인 카를로스 슬림(Carlos Slim), 시리아계인 카를로스 메넴(Carlos Menem) 아르헨티나 전 대통령, 팔레스타인계인 프란시스코 차우안(Francisco Chauhán) 칠레 상원 전 의장, 레바논계인 미세우 테메르(Michel Temer) 브라질 대통령 등이 대표적이다. 페루에서는 일본계 알베르토 후지모리(Alberto Fujimori)가 대통령을 지냈고, 자녀들은 현직 상원 의원이다. 중국은 페루에서만 국무총리 2명을 배출했다. 한국은 페루 찬차마요(Chanchamayo) 시의 정홍원이 선거로 시장에 당선되었고, 아르헨티나에서 번겨레가 차관보를 지낸 사례가 있으나 아직 중앙 정치 무대에는 진출하지 못했다. 이것을 두고 한인들이 주류사회에 편입하지 못했다고 말하지만, 정계진출이 드물 뿐 한인들은 법률, 방송,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활약하고 있다.

2010년 이채문의 조사에 의하면 브라질 거주 한인의 약 40%가 대학교육을 마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이민자 집단에 비하면 대졸자 비율이 15% 이상 높았다. 70년대 이후 대학 진학 세대들이 증가하면서 브라질 주류사회로의 진입이 가능해졌는데, 이들의 경우 언어와 문화적인 소통에서도 주류 사회와의 거부감이 없었다. 또한 한국사회의 높은 교육열도 자녀 세대의 대학진학률에 영향을 미쳤다. 출신 국가별 직업 조사에서는 한국계의 13.6%가 고위공무원 및 관리자로 일하고 있고, 전문가라고 응답한 이들은 18.3%, 기술자 및 준전문가는 5.8%, 사무직은 0.8%였다(이채문 2016, 69-72). 이는 의류업 이외의 분야에도

한인들의 진출이 상당함을 보여준다.

브라질 한인들의 전문직 진출 현황을 보더라도 적지 않은 한인들이 전문직으로 브라질 사회에 진출해있다(주한브라질문화원 2014, 65). 박사학위 취득자가 80여명이고, 대학교수가 60명, 판사 11명, 검사 13명, 변호사 150여 명, 공무원 21명, 군 장교 3명, 경찰간부 6명 등이다. 중남미 최초의 한인 여성 검사 이규순은 현재 브라질 연방법원 여성 판사다. 6살에 이민 나온 1.5 세대로 파라과이를 거쳐 브라질로 이주하였다. 부모님은 의류업에 종사하지만, 형제들은 모두 전문직에 진출하였다. 변호사인 홍창표(Nelson Hong)은 1.5세대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인 최초로 시의원에 출마하였다 낙선하였으나 2018년 10월 선거에 하원 의원으로 출마하였다. 당선되면 중남미 최초의 한인 국회의원이 된다. 한국을 소개하는 8권의 포르투갈어 책을 출판한 김유나는 최근 상파울루 시 의회 이민자 대표로 당선되어 브라질 최초의 한인 정치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평 조(Pyong Cho)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조영래는 구독자가 490만 명이 넘는 유튜브 스타이자 마술사, 배우, 댄서 등 만능엔터테이너로 활약하고 있다.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에서도 한인 방송인들의 활동은 한국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파라과이의 올란다 박(Yolanda Park)과 아르헨티나의 황진이는 거주국 최대방송사의 메인앵커이다.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 전 국가평의회 의장과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Hugo Chávez) 전 대통령을 인터뷰하기도 했을 만큼 뛰어난 능력을 보이고 있는 올란다 박의 인기는 파라과이 사람들의 한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바꾸어놓았다. 변호사이기도 한 황진이는 중남미 최초의 한인 방송인이다. 현재는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며 한국을 알리고 있다.

파라과이의 이민 1세대 구완서(1937년생)은 파라과이 계란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누트리 우에보(Nutri Huevo) 설립자이다. 파라과이 한글학교 초대 이사장, 한인회장 등을 지내며 재파라과이 한인들을 위해 헌신하였고, 파라과이 사회에도 나누는 삶을 실천하고 있다. 1.5세대인 33세의 김진현은 김스 타월(Kim's Towel)이라는 수건 생산업체를 설립했다. 수건을 모두 수입에 의존하는 파라과이에서 수건 시장 점유율 2위로 도약했고, 수출이 늘어나면 해외법인을 설립하여 꼭 한인을 법인장으로 보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주류사회에 편입하고 한인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강한 청년사업가다.¹⁶⁾ 시우단 델 에스테에서 대형쇼핑몰 테라노바(Terra Nova)를 운영하는 명세봉은 세계한상대회와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 OKTA) 파라과이 지회장이다. 중남미 회원들 간의 연대는 물론 고국의 청년들을 지속적으로 인턴으로 채용함으로써 한국과 중남미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대학을 다닌 그의 두 아들은 한국식 경영을 도입해 사업을

16) 출처: <http://bit.ly/2PucyPi> (검색일: 2018. 07. 01.).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¹⁷⁾

중남미 한인들의 의류사업이 확대된 것도 고등교육을 받고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한 1.5 세대의 역할이 컸다. 최근에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1.5세대와 2세대가 한국식 경영과 기술을 도입하여 부모세대의 사업을 발전시키고 있고, 의류 외의 사업에도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한인들이 의류사업에 종사하고 있고, 그 사업 규모가 커졌음에도 경영시스템은 옛날 방식에 머물러있다. 또한 중국 상품과 이민자가 밀려들고 있는데다 유럽의 저가브랜드들이 인기를 끌면서 같은 상권에서 같은 품목을 판매하는 한인 상공인 간의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 전문직 진출을 원하는 부모세대와 부모의 사업을 물려받기 원하는 자녀세대 간의 마찰도 문제다. 전문직으로 진출하거나 한국회사에 취업을 했을 때의 수입이 부모의 사업만큼 크지 않고, 한국의 조직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남미 이민 1세대들은 거주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족 중심의 노동집약적 의류사업에 종사하고, 민족정체성이 강한 탓에 한인들끼리의 폐쇄적인 이민 생활을 해왔다. 그만큼 1세대들의 현지화의 정도가 낮다는 뜻이다. 반면 1.5세대와 2세대로 넘어오면서, 또 80년대부터 고학력의 투자이민자가 늘어나면서 한인들의 현지화는 물론 모국과의 유대관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방향도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의 적응과 지위향상을 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는(임채완 외 2012, 130)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현지화와 네트워크 정책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인데, 중남미 지역도 이민 역사가 깊어지면서 의류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한인들만의 폐쇄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주류사회로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의 네트워크 사업인 세계한인회장단회의, 세계한인무역협회, 세계한상대회, 해외 한민족여성네트워크 등에 참여함으로써 모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차세대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편으로는 무역 종사자로서 역할을 함으로써 모국과 연계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국내 유관기관의 정보 제공이나 한국대회 참석, 무역스쿨을 개최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IV. 결론

1905년 멕시코로 떠난 조선인들의 노동이주는 한인들의 중남미 최초 이민이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고단한 시기를 지나면서 이민단 송출이 중단되었으나 1962년 해외이주법

17) 명세봉 회장 인터뷰 (2017. 10. 26.).

이 제정되고 브라질에 대규모 농업이민단을 파견하면서 본격적으로 중남미 이민이 시작되었다. 브라질, 파라과이, 볼리비아, 아르헨티나에 도착한 농업이민단은 농사에 실패하여 대도시로 이주하였고, 언어구사력과 자본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인 특유의 근면성과 독심으로 오늘날 중남미 의류사업의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중남미 이민 113년을 반추함으로써 재외동포정책과 그에 따른 중남미 이민사회의 특징을 탐색해보았다. 국내외의 중남미 동포연구와 중남미 국가와 시기에 따른 이민 유형을 소개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중남미 33개국의 113년 이민 역사를 다룬 개괄적 연구라는 한계성을 안고 있기도 하다. 연구의 결과 중남미 이민의 첫 번째 특징은 중미 이민과 남미 이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1960년대 시작된 남미 이민은 정부의 해외이주정책에 따른 대규모 농업이민이었으나, 중미 이민은 1980년대 중반에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정부 주도가 아닌 개별적인 이민이었다. 또한 남미 이민은 정부의 목적이 강했지만, 중미 이민은 투자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사업 목적이 컸다. 둘째, 60-70년대 정부의 이민정책은 이민단 송출에만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에 남미 한인들은 정부의 지원 없이 개인 스스로의 노력으로 정착하였다. 이민 초기 농업이민이 계속 실패하자 한인들은 대도시로 이주했고, 온 가족이 행상, 샅일에 뛰어들어 생계를 이어갔다. 그렇게 자본을 축적한 후에는 의류 도소매업이나 생산으로 사업을 확대하였다. 중미는 투자이민이므로 남미에 정착한 한인이민들의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나 농업이민으로 이주한 남미 한인들의 정착 과정은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현재 중남미 한인 대부분은 의류업에 종사하고 있다.

셋째, 중남미는 언어적 역사적 배경에 유사성이 크기 때문에 거주국 이동이 용이하다. 또 한인들이 대부분 의류업에 종사하므로 다른 국가로 이주하더라도 초기 정착이 어렵지 않다. 중남미 국가 내 한인들의 재이주는 거주국 경제사정에 따라 나타나는데, 1960-70년대 볼리비아와 파라과이 한인들의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로의 이주, 1980년대 에콰도르 한인들의 멕시코 이주, 2000년 아르헨티나 한인들의 멕시코 이주가 대표적이다. 넷째, 최근 의류산업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한인들이 의류산업에 종사하고 있어 한인들 간의 경쟁 심화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민 선배들이 이루어놓은 방식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의류사업은 이민생활을 시작하는 한인들에게 매력적인 사업이었다. 그러나 한인사회의 안정과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의류업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야 한다. 이제 1.5세대와 2세대, 즉 차세대가 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재외동포의 거주국과 모국에 대한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재외 한인들을 한국의 소중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모국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성화하고 있다. 그러나 한인이 거주하는 중남미 국가 중에는 아직 한인회가 결성되지 않은 국가가 있고, 중남미한상

연합회, 중남미한인무역협회도 일부 국가에서만 구성되어있는 실정이다. 중남미는 국가 간 연대가 강하므로 중남미 각국 한인네트워크가 통합하여 모국과 교류한다면 중남미 동포인구가 전체 재외동포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모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로 중남미 한인들은 2012년 중남미한인회총연합회를 결성하여 중남미 각국 한인들의 연대와 모국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2017년에는 중남미한인회총연합회, 중남미한상연합회가 처음으로 공동대회를 열었고, 중남미한인무역협회와도 교류를 늘려갈 계획이다.¹⁸⁾ 정부는 이와 같은 중남미 한인들의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사후관리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브라질은 일본이민단으로 입국한 조선인과 반공포로가 한국농업이민단을 맞았고 한인회 설립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멕시코의 경우 1905년 노동이민단과 1980년대 이후 개별 입국한 한인들이 각각 한인후손회와 한인회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이 2005년 멕시코 이민 100주년을 맞아 멕시코와 쿠바 한인 후손 초청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이민 시기와 정체성의 차이는 있지만,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사업과 통합하여 운영된다면 멕시코 한인의 외연을 확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남미 한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중남미 한인들의 규모와 강화된 위상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을 제외하고는 이에 상응할만한 중남미 한인 연구 결과물은 적다. 한국의 중남미 한인 연구는 2000년대 중반 중남미 연구지들에 의해 한인 이민사와 현황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정부 지원에 따른 연구보고서 형태였다. 이후의 후속연구는 드물게 발표됐고, 중남미 동포정책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지속적인 정부 지원과 개별국가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접근이 필요하며, 학계의 이런 연구가 현재의 포괄적인 재외동포정책이 아닌 거주지역 맞춤형 정부지원정책, 즉 중남미 거주 동포를 위한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18) 명세봉 회장 인터뷰 (2017. 10. 26.).



- 구경모. 2015. 파라과이 진출 한국 기업과 한인 사회의 갈등: 한인 후속 세대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남미연구 34(2), 53-74.
- 국사편찬위원회. 2007. 재외동포사 총서: 중남미 한인의 역사. 출처: <http://bit.ly/2PrZycT> (검색일: 2018. 07. 02.).
- 권숙인. 2005. 현지화 · 정형화 · 지구화: 재멕시코/일본 한인의 민족음식문화. 비교문화연구 11(1).
- 김기현. 2017. 라틴아메리카의 아시아계. 한울아카데미.
- 김낙현. 2015. 재브라질 한인문학의 형성과 성향. 우리문화연구 47, 189-219.
- 김영철. 2015. 중남미 재외동포 사회와 한류. 한국민족문화 58, 75-112.
- _____. 2016. 브라질 한국기업의 한인 2세대 노동환경 연구. 포르투갈-브라질 연구 12(1), 5-27.
- 김재기 · 임영언. 쿠바한인 디아스포라의 독립운동 재조명과 정부 서훈 문제. 한국보훈논총 10(1), 10-29.
- 김정훈. 2010. 미주지역 한인문학의 어제와 오늘. 한국문화사.
- 김향섭. 2006. 브라질 기초공동체의 위기와 과제. 종교문화연구 8, 105-125.
- 노용석. 2014. 과테말라 한인 사회의 형성과 문화적응전략으로서의 특수성. 민족연구 57, 130-154.
- 박영미. 2003. 하와이 한인이민과 비교한 멕시코 초기 한인 이민과정에 대한 고찰 서어서문연구 28, 651-669.
- 박채순. 2009. 아르헨티나 한인 동포의 재이주에 관한 연구. 이베로아메리카 11(2), 233-268.
- 서성철. 2000. 쿠바한인이민사. 이베로아메리카연구 11, 137-159.
- _____. 2004. 라틴아메리카와 한국인 이민/멕시코 한인사회와 현지적응. 라틴아메리카연구 17(2), 173-202.
- _____. 2005. 라틴아메리카와 한국인 이민. 라틴아메리카연구 18(3), 155-186.
- 신형진 · 이채문 · 이현철. 2016. 브라질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적 맥락. 디아스포라연구 10(2) 139-159.
- 안금영. 중미지역 초기 한인 사회에 있어서 국민회의 역할.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 5(2), 49-69.

- 양명호. 2016. 재외동포 관련 연구동향과 과제.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제9회 디아스포라 학술제, 57-81.
- 양은미. 2012. 상파울로 한인 1.5세: 학교라는 공간에서의 타자와의 관계 맺기. 포르투갈-브라질 연구 9(2), 96-126.
- 염미경. 2013. 멕시코 이주와 현지 한인사회의 형성과 변화. 재외한인연구 30, 77-116.
- 외교부. 2017. 재외동포현황 2017. 출처: <http://bit.ly/2PuJDub> (검색일: 2018. 06. 05.).
- 윤인진. 2009. 재외한인연구의 동향과 과제. 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2009. 12.) 발표문.
- 이종득. 2004. 멕시코 한인 이민자들의 성격과 정체성 변화. 스페인어문학 28, 693-715.
- 이용재. 2015.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의 과정과 과제. 민족연구 61, 4-24.
- 이채문 · 신형진 · 이현철. 2016. 브라질 거주 아시아계이민의 과거와 현재: 한인교 일제 이주민의 비교연구. 라틴아메리카연구 29(2), 51-79.
- 임채완 김혜련. 2012.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 재외동포정책 방향 모색: 현지화와 네트워크 정책을 중심으로. 재외한인연구 28, 123-158.
- 전경수. 1990. 아르헨티나의 한국이민: 형성과정과 분포경향. 이베로아메리카연구 1, 157-197.
- 정경원 · 신정환. 2003. 쿠바 한인 후손들의 정체성 상실과정 연구. 서어서문연구 28, 693-715.
- 정길화. 2015. 브라질의 케이팝 수용에 관한 연구. 이베로아메리카 17(1), 93-131.
- 주한브라질문화원. 2014. 브라질 속의 한국인. 디자인인트로
- 최금좌. 2000. 삼바 춤을 출 수 없었던 재 브라질 한인교포사회. 국제지역연구 4(2), 43-68.
- _____. 2014. 2013년 이민 50주년을 맞이한 재브라질 한인사회의 현황과 문제점. 중남미연구 33(2), 49-88
- 최진옥. 2017. 칠레한인의 글로벌 세미노스(Global semi-North) 정체성.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ialogorski Mirta. 1996. Articulación interétnica en medio urbano: judíos y coreanos en Buenos Aires. Estudios Migratorios Latinoamericanos 32, 111-33.
- _____. 2004. La presencia coreana en la Argentina: la construcción simbólica de una experiencia inmigratoria. Tesis doctoral. Universidad de Buenos Aires.
- _____. 2006. Minorías inmigrantes e identidades plurales. El caso de la comunidad coreana en la Argentina. Cuadernos FHyCS-UNJu 31, 107-118.

- Mera Carolina, 2011. El concepto de diáspora en los estudios migratorios: reflexiones sobre el caso de las comunidades y movilades coreanas en el mundo actual, Revista de Historia 12.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 재외동포신문 <http://www.dongponews.net/>
- 통계청(한국재외동포) <http://kosis.kr/>
- Economy Chosun <http://www.economychosun.com/>

● 투고일: 2018.07.22, ● 심사일: 2018.07.24, ● 게재확정일: 2018.08.13.

Immigration to Latin America and the Korean Overseas Policy

Lim Sujin (Daegu Catholic Universit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mplications of Korean immigration to Latin America. The first immigration to Latin America was labor immigration to Mexico in 1905. After establishing law on migration in 1962, the Korean government sent the agricultural immigration to Brazil, Paraguay, Bolivia, and Argentina. The agricultural immigration ended in failure. The immigrants moved to large cities, and earned their living by peddling or operated very small-sized apparel company. But there have been no agricultural immigrants in Central America, and there have been different aspects in immigration period, purpose, and settlement process. They moved to Mexico and Guatemala on an individual basis since 1980s. Nevertheless, currently most Korean immigrants in Latin America are engaged in apparel business. The well educated oncoming generation contributed to development of apparel business and entered mainstream society in the country of residence. The Korean government recognizes these human resources as valuable assets of Korea and promotes the policy of overseas Koreans since 1990s. Koreans in Latin America are participating in the Korean immigrants world network such as the Korean Association of Latin America and the Korean Commerce and Industry Federation of Latin America. And they are strengthening exchange and solidarity among Korean communities in Latin American countries. In this respect,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community of Latin America, and government policy, especially for Koreans in Latin America.

〈Key words〉 Overseas Koreans, Immigration to Latin America, Overseas Korean Policy, Agricultural Immigration